



어린이
워크북

2016창원조각비엔날레



용지호수공원, 성산아트홀, 문신미술관
2016 9.22-10.23

억조창생(億造創生)

WE CREATE THINGS, THINGS CREATE US



“수많은
사물에
생명을 부여하다”

예술은 작가가 작품에 의미를 만들어주는 모든 것입니다
2016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주제 ‘억조창생’은 수많은 사물에
생명을 부여하는 예술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괄호를 채워보세요!



Q 비엔날레(Biennale)란 무엇일까요?

비엔날레는 ()년 마다 열리는 세계적인 전시 행사를 말합니다.
세계 각국의 최근 미술 경향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Q 창원에서 열리는 비엔날레가 다른 비엔날레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이탈리아의 베니스 비엔날레, 미국의 휘트니 비엔날레, 브라질의 상파울로 비엔날레와
더불어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원()비엔날레** 라고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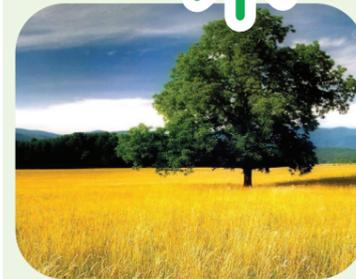
Q 억조창생(億造創生)이라는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한 작품과 이번 전시에서 내가 뽑은 최고의 작품은 무엇일까요?

주제를 가장 잘 살린 작품은 () 이고,
내가 뽑은 최고의 작품은 () 이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 입니다

오브제 - 물질적 상상력

성산아트홀 실내전의 제목은 [오브제 - 물질적 상상력]입니다. 오브제(objet)를 가지고
꾸며지는 설치작품이 전시장 곳곳에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동양철학의 5개 범주인,
오행(물, 불, 나무, 쇠, 흙)에 기반하여 작품들이 어떤 형태로 표현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꾸며졌어요.

Q 전시장에 있는 작품 중에 ‘물, 불, 나무, 쇠, 흙’ 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하나씩 찾아볼까요?

| | | |
|--|--|---|
| <p>물水</p>  <p>작품제목 : 작가이름 :</p> | <p>불火</p>  <p>작품제목 : 작가이름 :</p> | <p>나무木</p>  <p>작품제목 : 작가이름 :</p> |
|--|--|---|

| | |
|---|---|
| <p>쇠金</p>  <p>작품제목 : 작가이름 :</p> | <p>흙土</p>  <p>작품제목 : 작가이름 :</p> |
|---|---|

두상을 찾아라



성산아트홀 각 전시장에는 미술 시간에 자주 보던 여러 석고상을 닮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재료와 형태이기는 하지만, 작가는 본인의 의도에 맞게 작품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Q 해당 작품들의 설명을 읽고, 유추하여 비슷한 모습의 작품을 찾아보세요?



제 () 전시실
작가이름 :
작품명 :



제 () 전시실
작가이름 :
작품명 :



제 () 전시실
작가이름 :
작품명 :

〈작품설명〉

전형적인 서양 조각의 모습을 띤 두상은 처음에는 모두 똑같은 모습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다른 환경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박물관의 유물들도 시간과 역사에 의해서 스스로 유물이 된 것입니다. 유물이 되어가는 이러한 과정을 관람객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작품재료 : 비누

〈작품설명〉

작가의 얼굴을 기존 다비드 두상에 겹쳐서 포개놓은 작품입니다.

작가가 가진 동양의 이미지와 다비드 석고상이 가진 서양의 이미지를 함께 녹여냄으로써 동양인이지만 서구의 미술교육을 받은 작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작품재료 : 왁스(밀랍)

〈작품설명〉

미의 표상이라고 알려진 비너스 상을 다양한 인종의 얼굴로 변형한 작품입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사회적으로 정해진 미의 기준에 대한 탐구와 그 현실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던 미의 기준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작품재료 : 브론즈(청동)

창원 조각의 어제와 오늘 - 5인 거장 특별

한국의 대표적인 조각가들 중 창원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참 많답니다. 김종영, 문신, 박종배, 박석원, 김영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조각가들이며, 모두 창원출신입니다.

Q 다음 설명을 바탕으로 각각의 조각가와 작품을 연결 지어 보세요?



〈김종영〉



〈문신〉



〈박종배〉



〈박석원〉



〈김영원〉

조각이지만, 나무를 깎는 작업을 최소화한 '불각의 미'를 잘 표현했다.



왼쪽과 오른쪽을 반으로 접은 듯 한 대칭적 구조가 특징이다. 자연을 떠올리게 하는 형태의 작품을 만들었다.

완벽한 마감과 윤기나는 표면을 가진 작품 생명감과 리듬감이 잘 살아 있다.



철로 위를 달리는 기차 바퀴와 같은 둥근 원반의 모습이다.

지구와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중력)을 가진 것 처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관계와 내면의 고민들을 담아내고 있다.

